

03
2018

재외동포의

창

특집: 모국에서 수학할 39개국 75명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독특한 건축과 조경, 세계가 인정한 조선왕릉

40기 전체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연환경과 조화, 보존상태 양호



1. 항공에서 내려다 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위치한 영릉(英陵·사적 제195호). 영릉은 조선시대 4대왕인 세종대왕과 소헌왕후를 모신 합장능이다.
2.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사적 193호) 내 건원릉(제1대 태조).

조선왕릉은 40기 전체(북한 소재 2기 제외)가 2009년 6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는 조선왕조 유산인 조선왕릉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는 등재 평가 보고서에서 조선왕릉은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 양식을 지닌 점,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져 온 점, 조선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되는 점을 들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유네스코는 문화재 지킴이, 전주이씨대동종약원 등 지역·사회 공동체가 문화재 보존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또 조선왕릉이 능침공간, 제향공간, 진입공간으로 나뉘고 공간마다 독특한 조성방식과 석물이 있어 전체 공간 구성에서 가치가 있다는 점과 도시화로 말미암은 피해가 거의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돼 완충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한다는 사실도 등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조선왕릉은 같은 유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왕릉과 비교했을 때도 독자성

을 인정받았다. 평지에 능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중국 왕릉과 비교하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뤘으며 일본 왕릉에 비해서는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례 공간인 종묘(1995년)와 왕실 생활문화공간인 창덕궁(1997년)에 이어 사후세계 공간인 조선왕릉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조선왕조의 문화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가 널리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조선왕릉은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중국의 성리학 이론, 자연경관을 적절하게 융합했으며 공간배치, 석물의 조형도 빼어난 데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왕조가 500년 이상 이어졌고 모든 왕과 왕비의 능이 온전히 남아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조선왕릉이 유일하다. 왕릉을 이루는 광대한 수목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사라지고 외곽의 경계가 약간 변형된 사례도 있지만, 왕릉을 형성하는 핵심 부분은 조선 시대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까지 보존·관리되고 있다. **장**



- 02 한국의 얼 독특한 건축과 조경, 세계가 인정한 조선왕릉
40기 전체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연환경과 조화, 보존상태 양호
- 04 특집 모국에서 수학할 39개국 75명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거주국-모국 가교 되겠다"
- 06 화제 "3·1운동·건국 100주년이 평화체제 구축 출발선"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완성...
분단이 더이상 장애되지 않아야"
- 08 기획 유학생으로 시작, 자영업으로 뿌리내린 미국 뉴욕 한인사회
네일살롱 4천여 곳 성업, 슈퍼마켓으로 큰 돈 벌기도
- 10 글로벌 코리아 조지아 주 46개 카운티 관할 한인 1.5세 박병진 검사장
재일민단, 중앙본부 새 단장에 임명된 여건이 씨
'로마 패션위크' 서 신에 디자이너로 뽑힌 이탈리아동포 차수정 씨
- 12 지구촌 통신원 외신들이 꼽은 평창올림픽 명장면... 하키단일팀·갈릭걸스·클로이 김
'감동의 여정' 조명... 스포츠외교·北응원단도 인상적 장면에 꼽혀
- 13 한민족 공감 '평창올림픽 보고 전통놀이도 즐기고'... 각국 동포사회 설 풍속도
떡국과 불고기 등 함께 나누며 한복 입는 법과 세배하는 법 배워
- 14 동포소식 강제퇴거 이겨낸 日 우투로 재일동포, 문 대통령에 감사편지 외
- 17 동포 캘린더 독립기념관 6~7월 재외동포 가족 대상 '독도 캠프' 외
- 18 유공동포 한국·미 메릴랜드 주 교류협력 가교 역할...
'한인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
래리 호건 주지사 부인... "한인사회, 선거참여로 목소리 높여야"
- 19 주목! 차세대 캄보디아 폐북 인기 스타 '니어리 꼬레' 김려원 씨
팔로워 16만8천여 명 '좋아요' 15만6천 개... 100만 뷰 넘는 영상도
- 20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모국·동포사회 상생발전 혁신 추진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작은 천사들의 미소
강동헌 인도네시아 / 2017 동포문학상 중고부문 최우수상
- 24 고향의 맛·멋 값싸고 푸짐하고 매콤달콤한 '국민간식' 신당동떡볶이
떡·어묵·쫄면 등 식재료의 조화... 중국인, 일본인도 즐겨 찾아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재단은 '제20기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으로 학사 34명, 석·박사 41명 등 75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1997년부터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펼쳐온 장학사업은 1천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원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20기 재외동포재단 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및 졸업생 환송회

2018. 2. 23~24일
 장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주최: 재외동포재단



모국에서 수학할 39개국 75명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거주국-모국 가교 되겠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과 졸업생 등 39개국 110여 명의 장학생을 대상으로 2월 23~2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제20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졸업생 환송회’를 개최했다.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미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39개국 출신으로 학사과정 34명과 석·박사 과정 41명이다.

이들은 2017년에 선발돼 일부는 2017년 2학기에 학업을 시작했고, 대부분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2018년 1학기부터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전 2학기 이내에 한국어 연수제공, 매월 생활비, 최초 입학 및 졸업 출국 항공료, 논문 인쇄비, 역사문화 체험 등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다.

재단은 장학증서 전달 후 기존 장학생 중 재단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에 대해 시상하고 이번에 졸업하는 15명 가운데 우수 졸업논문을 써낸 4명의 발표회도 열었다.

한우성 이사장은 특강에서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을 주제로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에 대해 소개했다.

한 이사장은 장학생들에게 “유학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모국과 거주국의 상생발전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 재단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며 “졸업 후에도 동기·선후배 간 교류를 지속해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학생들은 EBS 한국사 강사인 최태성 씨의 ‘역사 속 인물의 삶과 업적 조명’ 특강을 들은 후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저녁에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졸업생 등 선배들은 유학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유학생 네트워크는 출신 국가를 떠나서 선후배간 학업뿐만 아니라 모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통로”라며 “초기 적응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애로사항에 대해 선배나 학

교 등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재단은 초청 장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졸업 때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등 뒷받침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주저하지 말고 동포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24일에는 유학생들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학사지침 설명회 참가 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 견학 활동을 벌였다.

재단은 1997년부터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1천여 명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국내 유학 기회를 제공했다. 졸업생들은 국내외 대기업, 학계, 법조계, 재외공관 등에 진출했다. 중국, CIS 지역 등 낙후된 지역 우수 동포 학생들을 지원해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이들을 고급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들 장학생을 출신국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CIS 지역이 그 다음이다. 그 밖에 중남미, 일본, 유럽, 아시아, 미국 등 고루 분포돼 있다. 재단 초청 장학사업에 신청하려면 재외동포로 거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한 적이 없어야 한다.

“학문도 심화하고 정체성도 키우겠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학문의 심화라는 목표와 모국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려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유학을 지원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소수만을 선발하는 장학생에 뽑힌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브라질에서 온 연세대 화학과 2학년 이세영 씨는 “어려서부터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한글을 가르쳐주신 부모 덕분에 유학생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돼 무척 기쁘고 열심히 모국을 배워 어디서든 당당한 한민족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국제 금융전문가가 꿈이라는 베트남에서 온 광진현(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여 세계에서 손꼽는 경제대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말했다.

고려인 3세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엘레나(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씨는 “학업에 충실하는 한편으로 전통문화와 역사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 명문 사립대학을 설립하는 게 꿈”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조선족 출신으로 연세대 치의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한 박용욱 씨는 “의술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유학을 선택했다”며 “기회가 되면 북한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희망을 말했다. **장**



1. 재단은 2월 23일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39개국에서 초청한 75명의 재외동포 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 재단 초청 장학생들은 2월 24일 전방 군부대를 견학하며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3. EBS 한국사 강사인 최태성 씨는 학생들에게 ‘역사 속 인물의 삶과 업적 조명’을 주제로 특강했다.
4. 입학생 대표로 학업에 열중할 것을 다짐하는 진용백(태국,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신리아나(키르기스스탄, 경희대 경영학과) 학생.
5. 한우성 이사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아름다운 영웅 김영욱’을 주제로 차세대들이 갖춰야할 리더십에 대해 소개했다.

“3·1운동·건국 100주년이 평화체제 구축 출발선”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완성…
분단이 더이상 장애되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3·1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반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다.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건국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부, 성별, 학벌, 지역의 격차와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내자”며 “김구 선생이 꿈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오늘 3·1 운동을 생생한 기억으로 살려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다. 이 거대한 뿌리가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 “가장



1



1.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월 1일 오전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문까지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한 뒤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2.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옥사에 마련된 특별전시를 관람한 뒤 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3. 문 대통령이 2월 23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입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의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3·1 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되살려냈다”며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우리 정부는 촛불이 다시 밝힌 국민주권의 나라를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며 “3·1 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곳곳에 아직 찾지 못한 독립운동의 유적과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중국 충칭의 광복군총사령부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복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여지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며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 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 이방카 美 보좌관 접견… “비핵화대화·남북대화, 함께 진전돼야” 강조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을 비공개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대화가 별도로 갈 수 없다”며 “두 대화의 과정은 나란히 함께 진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올림픽 안전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데 사의를 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25년간 한미 양국 정부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미 양국은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가야 하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창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며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건국절’ 논란에 확실한 쐐기를 박으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서 전개된 촛불집회를 연계시키며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유학생으로 시작, 자영업으로 뿌리내린 미국 뉴욕 한인사회

네일살롱 4천여 곳 성업, 세탁소, 슈퍼마켓으로 큰 돈 벌기도

NEWYORK



1. 지난해로 37회를 맞은 '코리안 퍼레이드 & 페스티벌' 행사가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 주최로 10월 7일 맨해튼 38가에서 시작해 27가까지 성대하게 진행됐다.
2. 미국의 금융·문화 중심지 맨해튼 풍경.

다인종이 모여 살아 '멜팅 팟'(Melting Pot)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민족이 모여있는 곳은 뉴욕이다. 백인 이민자뿐 아니라 캐리비안 출신 흑인도 이곳에 월등히 많다. 미국 내 520만 유대인 가운데 40%가 뉴욕과 뉴저지에 모여 산다. 한인은 어떨까.

재미동포 숫자는 우리 정부와 한인회, 미정부 센서스 간 차이가 크다. 외교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미동포는 249만2천252명이고 일부 한인 단체들은 약 300만 명이 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 정부의 2010년 센서스는 170만여 명으로 집계했다. 증가율을 고려해도 200만~220만 명 수준이다. 뉴욕의 한인 숫자는 2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국적인 시민권자가 35~40%로 가장 많고 유학생, 지상사 직원, 장기 방문객 등 일시 체류자도 비슷한 수준이다. 영주권자는 25% 정도이다.

1960년만 해도 뉴욕의 한인은 400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유학생이었다. 2000년에는

뉴욕시 8만6천400여 명을 포함해 메트로폴리탄 뉴욕 거주 한인이 17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한인의 미국이민은 1965년 이민법 개정이 기폭제가 된 이후 1987년 절정을 이뤘고 88서울올림픽 이후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 필리핀, 베트남은 미국이민이 늘어나면서 한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은 8만여 명에 달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26만 명이지만 인구비례를 고려하면 한국이 세계 1위인 셈이다.

뉴욕 한인사회의 인구 밀집지역은 퀸즈 보로에 있는 플러싱이 꼽힌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플러싱의 한인이 줄어들기 시작한 데 비해 뉴저지 주의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등이 있는 버겐 카운티로 몰려들면서 현재는 4만~5만 명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한인사회의 주력 업종도 세월이 흐르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한때 2천500여 곳에 달했던 청과물 가게는 500여 곳으로 줄어들었다. 지금 뉴욕·뉴저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한인 업종은 단연 네일살롱이다. 4천여 곳에 이르렀고



- 3. 뉴욕 지역의 대표적 코리아타운인 플러싱의 한인들이 작년 2월 설날 행사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이하 사진 퀸즈 칼리지 재외한인사회연구소 제공)
- 4. 뉴저지 주 포트리 한인타운 모습. 대표적 코리아타운인 플러싱의 한인이 줄어드는 반면 포트리, 팰리세이즈파크 등 뉴저지 버겐 카운티 지역은 한인업소가 늘어나는 추세다.
- 5~6. 한인업소들이 밀집해있는 맨해튼 32번가와 이곳에서 열린 코리아타운 페스티벌.

최근에는 중국인 네일살롱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다소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세탁소로 10~15년 전 많았을 때는 3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인이 운영하는 이 지역 슈퍼마켓도 150곳이 넘는다. 대형 슈퍼마켓은 가게 하나에 100~150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하다. 이런 슈퍼마켓을 10곳씩 소유하고 있는 한인도 여러 명이며 한인사회에서 큰 부자에 속한다.

2000년을 기준으로 뉴욕 일원 한인의 24%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의 자영업 비율은 27% 수준인 그리스, 팔레스타인 이민자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재미동포의 자영업 비율이 높은 배경에 대해 한인사회를 연구해온 민병갑 뉴욕 퀸즈칼리지 교수는 다수의 한인이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필리핀 등 여타 아시아국가 이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언어장벽 요인 이외에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자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갖고 나오기가 용이해졌고 끈끈한 가족 유대감과 한인사회 네트워크도 자영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뉴욕 한인 청과상 업체, 단합해서 흑인들의 불매운동 극복”

식료품가게(grocery store)를 비롯한 자영업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이다. 오전 7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심지어 새벽 3시에 뉴욕 헨츠포인트 청과시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자녀의 잠자는 얼굴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고달픈 이민생활이었다. 그뿐 아니다. 한인 청과물 가게를 겨냥한 흑인들의 불매운동은 1981~1995년 기간 15차례나 있었고 6번은 최소

한 달간, 최장 17개월간 불매운동이 계속된 적도 있다. 그러나 한인 청과상 상인들은 불매운동과 협박, 신체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단결력으로 이를 극복했다. 민병갑 교수는 “한인들이 자신들끼리 싸우다가도 적이 나타나면 무섭게 단결한다”면서 “흔히 화교들이 잘 단결한다고 알려졌지만, 출신 지역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세대 진전 따른 민족성 소멸 위기… 뿌리교육·청소년 모국방문 확대해야”

자영업에 치중했던 한인사회의 업종 판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엿보인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는 자영업을 외면하고 전문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인사회가 3세대까지 내려가면서 이민사회가 아니라 미국사회에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 실제 한인 인구에서 13세 이후 미국에 이민 온 1세대 한국인의 비율은 48%이며, 재미동포의 다수는 1.5세대나 2세대 이상이다. 재미동포의 혼혈 비율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아져서 8세 미만 아동은 43%에 달하고 있다. 20년 후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들의 한인 정체성 유지 정도가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민 교수는 세대 진전에 따른 민족성 소멸을 둔화시키는 조치로 ‘뿌리교육’ 기관을 많이 세우고 한국계 청소년들이 여름에 모국을 방문해 뿌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외동포재단과 한인공동체의 노력으로 최근에 많이 활성화됐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인 동포사회의 역사, 사회, 문화를 강의·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 1호 미 연방검사장’, 지명 7개월 만에 공식 취임

조지아 주 46개 카운티 관할 한인 1.5세 **박병진** 검사장



미국의 첫 한인 연방검사장으로 지명됐던 박병진(미국명 BJ Pak·45) 미 조지아 주 북부지방 검사장이 2월 19일 임명선서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박 검사장은 토머스 스래쉬 주니어 조지아 주 북부지방 수석 연방판사가 주관해 진행한 임명식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박 검사장은 조지아 주 북부 46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연방검찰청의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박 검사장은 작년 9월 말 연방의회 인준 절차를 마치고 사실상 업무를 해왔으며, 지난 1월 말에는 각 부서장 교체 인사까지 단행했다.

박 검사장은 2010년 조지아 주 하원의원에 당선돼 6년간 활동했고 화이트칼라 범죄 전문 법률회사를 차려 일하다 조니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주) 상원의원의 추천을 받아 검사장에 지명됐다. 서울에서 태어나 9살 때 미 플로리다 주로 이민 온 한인 1.5세로 일리노이 법학대학원을 나와 20년 가까이 검사와 소송 담당 변호사로 활약했다.

특히 2002년부터 조지아 주 북부 항소법원 검사보로 6년간 근무하면서 코카콜라 영업비밀을 펩시에 빼돌리려 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박 검사장은 한미우호협회(AKFS)가 수여하는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선정돼 2월 23일 상을 받았다.

연방검찰은 미전역을 93개 지구로 분할해 각 지구에 한 개의 연방검찰청을 두고 있고 주의 크기에 따라 1개에서 4개까지 연방검찰청의 수가 다르다. 미 연방검찰의 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연방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헤이트 스피치 근절과 지방 참정권 획득 힘쓸 것”

재일민단 중앙본부 새 단장에 임명된 **여건이** 씨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중앙본부 단장으로 여건이(69) 민단 중앙본부 의장이 2월 22일 임명됐다. 민단은 이날 도쿄 미나토(港)구 민단 중앙본부에서 정기 중앙대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여 씨를 중앙본부 단장으로 임명했다. 재일교포 2세인 여 단장은 1972년 청년회 결성 운동에 참가하면서 민단에 발을 들여놓은 뒤 도쿄 한국청년상공회 회장, 민단탈북지원센터 대표, 중앙본부 부단장과 의장 등을 거친 ‘민단통’이다

그는 역점사업으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근절과 지방 참정권 운동의 재구축을 꿈꾸면서 “헤이트스피치로 재일교포들이 살기 힘든 시대가 됐다. (헤이트스피치가 없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일본인과의) 유대를 깊게 하면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일교포의 참정권과 관련,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것 정도는 관찮지 않으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오해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다”며 “젊은 세대(의 재일교포)가 일본

사회 안에서 힘내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 단장은 입후보 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의 상호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실제로 관계 개선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6년 민단과 조선총련이 화해를 선언했을 때 반발했던 인물이다. 당시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민단은 화해 선언을 백지화하고 단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화해 선언에 대해 “그런 일이 다시 생길

다면 마찬가지로 뒤집을(철회시킬) 것”이라며 “총련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재일교포의 복송,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 반성한다면 같은 민족끼리 대화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양적 신비 · 모던함 돋보이는 의상 선보여... “한강 작품서 영감”

‘로마 패션위크’ 서 신예 디자이너로 뽑힌 이탈리아동포 차수정 씨

이탈리아 동포 디자이너 차수정(46) 씨가 1월 26~28일 열린 ‘2018/2019 로마 패션위크’에서 떠오르는 신예디자이너로 선정됐다. 공동개최자인 로마 패션위크 추진위원회(Alta Roma)와 유명 패션잡지 보그이탈리아는 이번 행사에서 8명의 신예 디자이너를 선발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은 차 씨가 유일하다. 선발된 이들은 최근 이탈리아 패션업계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한 디자이너들로 행사 기간 별도의 패션쇼 기회가 주어졌다.

2016년에 밀라노에서 자신의 여성브랜드 ‘수차’(SOOCHA)를 선보인 차 씨는 이번 무대에서 한국의 색동옷과 규방 공예인 조각보를 활용한 의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패션쇼는 이탈리아 공영방송인 RAI와 세계적 문화잡지 롤링스톤에서 ‘동양적인 신비와 모던함이 돋보이는 패션’으로 평가받는 등 여러 매체에 소개됐다. 차 씨는 “작가 한강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얻어 옷을 만들었다”며 “소설처럼 슬프고 어두운 현실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무대에서 표현했는데 반응이 좋아 힘이 난다”고 밝혔다.

동아대 섬유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섬유업체에 근무하다가

2000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패션 분야 명문 디자인 학교인 IED에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했다. 2002년 피렌체 국제 섬유전시회와 2003년 이탈리아 직물박람회 이데아 코모의 실크어워드(Silk Awards)에서 출품작으로 대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에는 보그이탈리아가 주최



한 신예 디자이너 콘테스트 ‘Who is on Next?’의 최종 후보에 올라 스폰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캐주얼 브랜드인 C’N’C와 기성복 회사인 ‘Sports Couture’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활약하다가 2016년 창업했다.

차 씨는 “한국과 이탈리아 양쪽의 패션업계 근무 경험이 디자인 창작에 큰 힘이 된다”며 “한국적인 것을 유럽의 문화와 접목해 차별화된 패션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장**

외신들이 꿈은 평창올림픽 명장면... 하키단일팀 · 갈릭걸스 · 클로이 김

‘감동의 여정’ 조명... 스포츠외교 · 北응원단도 인상적 장면에 꼽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감동의 여정’을 재조명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마련된 ‘스포츠 외교무대’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17일간 이어진 열전도 술한 화제를 낳았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자사의 올림픽 특별취재단 개개인이 선정한 명장면들을 소개했다. 마토코 리치 기사는 승패를 떠나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의 마지막 경기를 꼽으면서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아이스링크 중앙에 모여 스틱을 내려놓고 타원 모양을 만들자 관중들은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고, 경기장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졌다”고 말했다. 랜들 아치볼드 기사는 ‘한국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쇼트트랙 남자 1천500m 경기를 꼽았다. 아치볼드는 “대회 첫날 나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 경기를 봤다”면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경기장을 찾았고, 북한 응원단도 로봇 같은 정확성으로 물결을 이루며 응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취재했던 어떤 스포츠 경기도 이번처럼 스포츠와 지정학의 울림이 어우러지지 않았다”면서 “나로서는 첫 번째 올림픽 취재이며 아마도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썼다.

일간 USA투데이는 “모든 올림픽은 크고 작은 승리와 좌절로 얽혀져 있다. 이번 17일의 아름다운 여정은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만들었다”며 17개의 명장면을 선정했다. 우선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모두 참석했지만, 별도의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던 올림픽 개막식을 꼽으면서 “남북 공동입장 때 펜스 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로 금메달을 따낸 한국계 클로이 김의 여자 하프파이프 우승장면도 인상 깊은 순간으로 꼽았다. USA투데이는 “한국계 이민 가정에서 자란 17세의 클로이 김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했다”면서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위). 기적 일궈낸 갈릭 걸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평창동계올림픽 명장면 10개’를 선정하면서 북한 응원단을 소개했다. 가디언은 “북한 응원단은 가는 곳마다 시선을 사로잡았다”면서 “반응은 복합적이지만 분명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또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에 대해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고향인 의성의 특산물에 빗대 ‘갈릭 걸스’(마늘 소녀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면서 “강철같은 집중력과 톡톡 튀는 개성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은메달을 얻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한국계 클로이 김에 대해서도 “전 세계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고 호평했다. **▶**

이준서 연합뉴스 뉴욕 특파원

‘평창올림픽 보고 전통놀이도 즐기고’ ... 각국 동포사회 설 풍속도

떡국과 불고기 등 함께 나누며 한복 입는 법과 세배하는 법 배우

해외 각국 동포들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고국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청하거나 현지에서 마련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국 뉴욕 한인사회는 2월 17일 플라싱의 유니온 스트리트에서 ‘2018 설 퍼레이드’를 펼쳤다. 중국커뮤니티와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 퍼레이드에는 꽃차 7대와 40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해 열린 뉴욕 한인사회의 설 퍼레이드 장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어교육재단이 2월 3일 미리 마련한 설 잔치에서 참가자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김수현 퀸즈한인회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한인 2세가 참가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볼거리와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고국에서 펼쳐지는 평창올림픽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퍼레이드가 끝난 뒤에는 한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떡국을 함께 나누고, 자리를 금강산연회장으로 옮겨 전통놀이 등 문화공연을 하며 설 잔치를 이어갔다.

남가주 호남 향우회도 같은 날 오후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2018 설날 대잔치’를 열었다. 한인 단체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한인은 떡국을 함께 나누며 38대 백지영 회장의 취임식도 개최했다. 앞서 LA지역에서는 2월 13일 다문화연합회(회장 이옥분)와 LA 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이 한국어 강좌 수강생과 가족들을 초청해 한국 명절을 체험하고 올림픽을 보면서 설 행사를 진행했다. 타인종 수강생들은 세배하기·한복 입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윷놀이·제기차기·투호 등 우리의 전통놀이를 즐겼다.

샌프란시스코의 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구은희)은 2월 3일 새너제이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동포 2세와 외국인 학생, 입양 한인 등을 초청해 설 잔치를 미리 열었다. 떡국과 불고기 잡채 등을 함께 나누며 한복 입는 법과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어른들께 직접 세배를 한 뒤 세뱃돈을 받도록 하는 등 설 명절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

다. 참가자들은 전통무용인 설장구와 부채춤 공연을 관람하면서 한국 무용에 빠졌고, 전통놀이인 윷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에는 마셜 그릴리 밀피타스 부시장을 비롯한 현지 인사들과 김지민 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정승덕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통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마셜 그릴리 부시장은 “아름다운 한국 문화에 반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한국 문화를 주류사회에 더 많이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사를 마치고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차 방한한 구은희 이사장은 2월 7일 “많은 미국인이 우리의 명절인 설을 ‘중국설’로 알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보고자 지난 2006년부터 ‘타인종과 함께하는 설 잔치’를 열고 있다”고 소개했다.

호주의 한인 밀집지역인 이스트 우드에서는 2월 17일 설 음식 경연대회를 열고 24일 먹거리 야시장을 열었다. 또 3월 3일 ‘제10회 호주 이스트 우드 설 축제’를 마련했다. 시드니 북서쪽에 있는 이스트 우드는 호주에서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매년 설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중국 연변 TV는 설 당일인 16일 저녁 ‘2018 음력 설 문예 야회’를 방영했다. ‘고향의 새봄’을 주제로 고향 정을 나누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노래·무용·뮤지컬·댄스 등 다양한 장르로 무대를 꾸며 조선족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강제퇴거 이겨낸 日 우토로 재일동포, 문 대통령에 감사편지

재일동포 차별의 상징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렸던 일본 교토 우지 시의 우토로 주민들이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시영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국에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우토로 주민회(회장 엄명부) 일동은 2월 6일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에 보내온 편지에서 "30년간 계속된 강제퇴거 위기에서 벗어나 재개발된 시영주택에 입주하게 된 데에는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앞장서 문제 해결에 나선 덕분"이라며 "살아온 터전을 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동지를 틀 수 있도록 도운 시민단체 등 모국의 뜨거운 동포애도 큰 힘이 됐다.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주민들은 이번 주 중으로 '1기 우토



철거 되기 전 우토로 마을과 재개발로 건립된 '1기 시영주택'.

로 시영주택'에 40세대가 입주를 완료한다. 나머지 20세대는 2019~2020년 건립 예정인 '2기 시영주택'에 입주한다.

우토로 마을은 일제 강점기였던 1941년 교토비행장 건설에 재일동포가 강제동원되면서 형성됐다. 무허가 마을로 2004년

토지매입자가 강제철거를 추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법적 대응에도 저 마을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1989년 일본의 양심세력을 중심으로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 결성됐고, 이 소식이 한국에도 알려져 '우토로국제대책회의'가 만들어졌다. 일본인과 한국 시민단체 등의 성금과 2007년 한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주민 재입주 보장을 전제로 일본 정부의 재개발이 추진됐다.

오스트리아 한인들, 평창서 거주국 선수들 격려 만찬

오스트리아 한인들이 동계올림픽 기간중인 2월 20일 평창에 있는 오스트리아관에서 거주국 국가대표 선수 120명 전원과 관계자 등을 초청해 격려 만찬을 베풀었다. 만찬은 한오친선협회(부회장 박종범)와 재오스트리아한인연합회(회장 정종원), 박 부회장이 경영하는 영산그룹, 일식 레스토랑 체인점 '아카키코'(대표 전미자) 등 한인 기업이 마련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문화예술기획사 월드컬처네트워크(대표 송효숙)의 격려 콘서트가 열렸다.

한인들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오스트리아 대표를 응원하기 일찌감치 응원단을 구성했고, 이번에 평창을 찾았다. 응원단은 치어리더들을 앞세워 오스트리아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장



평창올림픽에서 오스트리아 선수를 응원하는 한인들.

마다 찾아가 거주국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두르며 응원을 펼쳤다. 박종범 부회장은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2월 19일에는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용평리조트 드레곤

밸리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초청해 만찬과 공연을 열었다. 행사에는 우크라이나의 이고르 즈다노프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비롯해 100여 명의 선수와 코치·언론인 등 모두 130여 명이 참가했다.

재미한인단체, 의회에 서한... “평창 이후 긴장 고조 막아달라”

미국 내 한인 단체인 미주한인위원회(CKA) 회원 53명이 연명으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에게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써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2월 27일 미주한인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펠로시 원내대표와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다이앤 페인스타인, 카말라 해리스(이상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에 “2018 평창올림픽 이후 미국과 북한 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당과 의원실이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의회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썼다. 미주한인위원회의 샘 윤 사



미주한인위원회가 의회에 보낸 서한.

무총장은 “우리 위원회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은 재미 한인들에게 깊숙하고 직접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펠로시 대표 등에게 “우리 위원들과 직접 만나서 법안을 입안하길 바란다”면서 “의회가 나서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의회의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 단계에 있다가 이른바 ‘코피 전략’을 둘러싼 이견으로 낙마했다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의회가 북한에 대한 외교와 관여 노력을 충분히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일민단, 한인가정 2만호 방문사업 실시... “동포사회 통합”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여건이, 이하 민단)은 동포사회의 대통합을 위해 한인 가정 2만 호 방문사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출범한 새 집행부는 민단 활동에 적극적인 1~2세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현지화하는 차세대를 끌어안겠다는 목표 아래 중앙본부와 48개 지방본부가 5월부터 동시에 단원 가정을 중심으로 호별 방문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며, 이를 통해 새로 작성한 명부는 지진 등 긴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여건이 단장은 “올해는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에 거주했던 구정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1980년대 이후 일본



2월 22일 민단 정기 중앙대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된 신임 집행부. 왼쪽부터 박안순 중앙본부 의장, 여건이 민단 단장, 양동일 감찰위원장

으로 건너온 신정주자, 일본 국적 취득 동포, 국제결혼 가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차별실태나 불우이웃 현황도 파악해 지원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적자 42만 명에 귀화자를 포함하면 재일동포는 100여만 명에 이른다”며 “다양한 구성원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얼굴을 맞대는 가정방문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단 단원은 8만 세대 정도로 추정된다. 민단은 2015~2016년에도 현황 파악을 위해 아이치, 시즈오카, 후쿠오카 등에서 호별 방문을 추진한 바 있다.

민단은 정체성 확립과 생활지원 확대 등의 사업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미동포 밴드, 뉴욕서 윤동주 · 정병욱 추모공연

재미동포 음악인들로 구성된 밴드 '눈 오는 지도' (www.snowingmap.com)는 2월 18일 뉴욕 플래싱에 있는 카페 '뉴욕의 아침'에서 시인 윤동주(1917~1945년)와 그를 세상에 알린 후배이자 국문학자인 정병욱(1922~1982년) 박사를 추모하는 공연을 개최했다. 윤동주의 시 '눈 오는 지도'에서 이름을 따온 밴드는 리더 한은준을 비롯해 유혜림(보컬·건반)·노성종(베이스)·차승현(드럼)·정재용(기타)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연에서 윤동주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 '서시'·'자화상'·'십자가'·'새벽이 올 때까지'·'별 헤는 밤' 등을 관객에 선사했다. 밴드는 올해 윤동주 서거 73주년을 맞아 그를 세상에 알린 정병욱 박사를 특별히 기억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김수진 뉴욕교회한국학교 교장과 원혜경 뉴



재미동포 음악인들로 구성된 밴드 '눈 오는 지도(地圖)'의 윤동주 73주기 추모공연 포스터.

저지훈민학당 한국학교 교장, 최영수 변호사는 공연 중간마다 출연해 윤동주와 정병욱에 대한 인연 등에 대해 소개했다. 정 박사는 연희전문을 함께 다니고 졸업을 앞두고 남긴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19편이 수록된 육필원고 유일본을 일제의 감시를 피해 전남 광양시 진월면에 있는 자택의 마루 밑에 감춰 보관했다. 그는 윤동주가 옥사한 뒤 원고를 찾아 윤동주의 동생 윤일수에게 찾아가 함께 시집을 내자고 했고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발간했다.

작곡가인 한 씨 등은 지난 2005년 '눈 오는 지도'를 결성했고, 2년 뒤부터 뉴욕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캐나다 등지에서 윤동주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불렀고, 추모공연은 올해 11번째다.

화가 이우환 개인미술관, 프랑스 남부에 세워진다

프랑스 남부 아를에 한국 출신 현대 미술의 거장 이우환(82) 화백의 개인미술관이 건립된다. 이우환 재단은 프랑스 남부 아를의 17세기에 지어진 호텔 건물을 매입해 미술관으로 꾸밀 계획이다. 아를의 유명한 고대 로마 시대 원형경 기장과 포룸광장 사이 구도심에 있는 유서 깊은 건물로, 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은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맡기로 했다. 다다오는 일본의 작은 섬 나오시마(直島)에 이우환 미술관을 설계한 인연으로 프랑스의 이우환 미술관 설계에 참여한다.

1970년대 프랑스로 건너온 뒤 프랑스와 일본,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해온 이우환 화백은 프랑스에서 특히 명성이



이우환 화백.

높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통해 사물과 공간, 위치, 상황, 관계 등에 접근하는 미술 유파인 '모노하'(物派)의 중심인물로 꼽힌다. 지금은 주로 일본에서 지내지만, 파리에 아틀리에를 소유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프랑스의 화랑과 컬렉터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아시아 작가다. 이우환 화백은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들어설 오래된 3층 짜리 건물이 로마 시대 문명의 흔적과 폐허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시간에 대한 영감을 많이 준다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안도 다다오는 향후 3~4년에 걸쳐 건물을 개조해 1~2층은 이우환의 기증작품 전시공간으로, 3층은 기획전시공간과 사무실로 꾸밀 예정이다. **장**

독립기념관 6~7월 재외동포 가족 대상 '독도 캠프'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6월과 7월에 1차례씩 '독도학교 재외동포 가족캠프'를 연다. '한국과 독도를 아시나요?' 라는 이름의 캠프로 6월 28~29일(1차)과 7월 5~6일(2차)에 40명씩 참가자를 받는다. 참가는 무료이며 2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j10197@naver.com)이나 전화(+82-41-560-0438)로 문의하면 된다. 기념관은 2013년 독도학교를 개교해 매년 재외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독도 수호의식을 함양하는 캠프를 열고 있다.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6월과 7월에 1차례씩 '독도학교 재외동포 가족캠프'를 연다. '한국과 독도를 아시나요?' 라는 이름의 캠프로 6월 28~29일(1차)과 7월 5~6일(2차)에 40명씩 참가자를 받는다. 참가는 무료이며 2월 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sj10197@naver.com)이나 전화(+82-41-560-0438)로 문의하면 된다. 기념관은 2013년 독도학교를 개교해 매년 재외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독도 수호의식을 함양하는 캠프를 열고 있다.

월드옥타, 콜롬비아·에콰도르에 지회 설립... 7개국 143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콜롬비아 보고타와 에콰도르 키토에도 지회를 설립했다. 월드옥타는 박원규(사진 왼쪽) 보고타 초대지회장과 오창호(사진 오른쪽) 키토 초대지회장의 지회 설립 신청을 최근 승인했다. 이로써 월드옥타는 중미지역에 5개, 남미지역에 8개 지회를 두게 됐다. 전체 지회 수는 7개국 143개다. 박 지회장은 현지에 진출해 20년간 건축업을 하고 있으며, 오 지회장은 14년째 무역업체인 '아시아 메가무역'을 운영하고 있다.



연변TV, 5월 日 도쿄서 '일본 조선족 노래자랑'

중국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은 오는 5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족들이 참가하는 '일본 조선족 노래자랑'을 연다. 일본조선족문화교류협회와 함께 여는 노래자랑 예선은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치러진다. 결승 무대 진출자들에게는 2개월 동안 주말 시간을 이용해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 방송은 노래자랑을 녹화한 뒤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6월께 방송할 계획이다.



중국 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은 오는 5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족들이 참가하는 '일본 조선족 노래자랑'을 연다. 일본조선족문화교류협회와 함께 여는 노래자랑 예선은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 치러진다. 결승 무대 진출자들에게는 2개월 동안 주말 시간을 이용해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 방송은 노래자랑을 녹화한 뒤 특별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6월께 방송할 계획이다.

호주 퀸즐랜드에 한인사회 첫 종합문화회관 개관

4만5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2월 24일 처음으로 한인종합문화회관이 문을 열었다.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시 한인타운 인근에 들어선 회관은 200㎡(6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시에서 임대해 사용한다. 회관에는 한인회, 경로회 등이 입주하며 각종 한인 단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 사물놀이·한복 예절 등 한인 2세와 현지인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4만5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2월 24일 처음으로 한인종합문화회관이 문을 열었다.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시 한인타운 인근에 들어선 회관은 200㎡(6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시에서 임대해 사용한다. 회관에는 한인회, 경로회 등이 입주하며 각종 한인 단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된다. 사물놀이·한복 예절 등 한인 2세와 현지인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블라디보스토크서

남북한 총영사 함께 설 축하행사 참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대화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2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현지 한인단체가 주최한 설맞이 축하행사에 현지 남북 총영사가 나란히 참석했다.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는 행사에 참가해 북한 총영사(사진 가운데)와 새해맞이 축하 건배를 했다. 북한 총영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사했고, 이 총영사는 "남북 간에 좋은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대화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2월 1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현지 한인단체가 주최한 설맞이 축하행사에 현지 남북 총영사가 나란히 참석했다.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는 행사에 참가해 북한 총영사(사진 가운데)와 새해맞이 축하 건배를 했다. 북한 총영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사했고, 이 총영사는 "남북 간에 좋은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재외동포 기업인 대상 '21세기 장보고 상' 공모

장보고 한상 어워드 선정위원회는 7월 31일까지 '제3회 장보고 한상 어워드' 현정자를 공모한다.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 상은 해외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상(韓商)에게 주어진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공모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된 국내외 단체 또는 이 상의 역대 수상자의 추천을 받아 이메일(changpogogf@gmail.com) 또는 우편(서울 중구 퇴계로 344 광희빌딩 4층 장보고글로벌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미 메릴랜드 주 교류협력 가교 역할... '한인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

미국 메릴랜드 주 래리 호건 주지사는 자신을 '한국 사위'라고 부른다. 부인이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가기 때문이다. 2004년 당선된 호건 주지사는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했고 첫 한인 장관을 임명했다. 또한, 미주 한인 이민 113주년인 2016년 1월 13일, 주 정부 차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했고 12월 '한국의 길(Korean Way)'을 지정했다. 같은 해 6월 림프종 3기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극복해낸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태권도 애호가인 그는 매년 4월 5일을 주 차원의 '태권도의 날'로 지정했다.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게 된 것은 유미 여사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유미 여사는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한인 퍼스트레이디'이다. 지난해 9월 메릴랜드 주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 인터뷰에서 "한인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7박8일 간 한국에 머물면서 정관계 인사들과 현대, 아시아나, 하나투어, 한국전력 등 50여 개 기업 경영진을 만나 무역과 투자 활성화, 문화 교류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코트라 투자 포럼과 주한 미국대사관 리셉션 등 각종 회의와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한국과 메릴랜드 주의 교류·협력 가교 역할로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방한 기간 고향인 전남 나주를 찾았고 전남도청에서 열린 나주와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 지난해 9월 3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언론 인터뷰하는 모습.

제2의 고향인 메릴랜드 주 자매결연식에 참석했다.

유미 여사는 작년 9월 7일 서울 건국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 대학생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남편이 주지사가 된 것도, 암을 극복한 것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 덕분이다. 희망, 용기를 버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이민 간 지 37년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았다"며 웃으며 말했다. 미국 내 한인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선거를 통해 한인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 미국 정치에서 한인사회를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또 그 래야만 자라나는 세대가 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했다.

건국대는 메릴랜드 예술대학 겸임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 발전 및 예술 교육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를 전도하는 데 앞장선 공로로 그에게 명예 미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유미 여사의 막내딸 줄리 씨도 재작년 9월 한인 2세와 화촉을 밝혔다. 호건 주지사는 2004년 '싱글맘'

유미 여사와 결혼했다. 수차례 도전 끝에 2014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당선된 호건 주지사는 인기가 높아 오는 11월 6일 치러지는 주 총선에서 승리해 연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장**

“
래리 호건 주지사 부인...
“한인사회, 선거참여로
목소리 높여야”
”

캄보디아 폐북 인기 스타 ‘니어리 꼬레’ 김려원 씨

팔로워 16만8천703명, 전체 ‘좋아요’ 수 15만5천988개, 40개가 넘는 영상 가운데 ‘길거리 먹방 영상’은 100만 뷰 돌파.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언어로 개설한 페이스북 ‘니어리 꼬레’ (한국 여자 · www.facebook.com/nearykorea)가 7개월여 만에 올린 기록이다. 한국에서도 이 정도의 팔로워가 있다면 ‘인기 폐북’으로 말할 수 있다. 1월 30일 현재 현지인들의 자발적 공유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계속 퍼지고 있다.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폐북을 개설한 주인공은 김려원(26) 씨. 단기 선교사로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2013년 10월 거주를 결정하고 정착한 그는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폐북을 통해 캄보디아인들과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제게는 아주 특별한 땅인 이곳에서 살아가는 제 삶을 담아보고 싶었다”며 “이 나라는 책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문화가 발달해 있어 폐북을 생각하게 됐다”고 폐북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선크림을 밤에 바르는 건지 낮에 바르는 건지, 스킨로션을 언제 바르는지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고,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외국인의 삶을 담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기 비결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외국인의 진정성이 제일 큰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댓글에도 ‘우리 나라 사랑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소개했다. ‘니어리 꼬레’에는 캄보디아에서 살아가는 그의 일상의 모습과 문화 체험, 부산 강동시장 방문기 등이 사진과 영상으로 게재돼 있다. 가령, 캄보디아식 소시지와 개구리 고기, 파인애플 등을 시식하고 별 점수를 매기는가



캄보디아서 현지어로 폐북 ‘니어리 꼬레’ 운영하는 김려원 씨.

하면 기초 화장법을 잘 모르는 현지인들을 위한 ‘이중 세안법’과 ‘열대과일 천연팩 만드는법’, ‘흑설탕 각질케어’,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41개의 동영상 중 한 지역을 여행하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영상은 100만 뷰를 넘었을 정도다.

그는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열고, 콘티를 짜면서 번역과 수정, 촬영 및 편집 등의 작업을 거의 혼자서 하신다. 현지 방송 ‘CBN 크메르 TV’는 이 폐북에 올라온 영상을 한주도 빠짐없이 공유하고 있고,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인터뷰 제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프로그램 노출을 원치 않아서 제의를 정중하게 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캄보디아에서 영향력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또는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
팔로워 16만8천여 명
‘좋아요’ 15만6천 개...
100만 뷰 넘는 영상도
”

재외동포재단, 모국·동포사회 상생발전 혁신 추진

재외동포재단은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단은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혁신관리위원회'와 '중장기 발전 TF'를 구성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우선 추진 과제로는 ▲모국과 동포사회 교류 협력 증진 및 상생발전 도모 ▲동포 차세대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소외동포 지원 강화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위한 제도 개선 ▲재외동포의 재단 사업 참여 확대 ▲지역 상생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확대, 중국·CIS 지역 등 특수지 민족교육 기반 강화, 국내 중소기업 및 청년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 등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 동포 지원,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체류 지원, 재외동포 신문고 기능 활성화, 해외파견지 확대 등이다.

재단은 5월 말까지 중점 사업과 조직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제주도 이전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을 202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재외동포 초청 연수의 제주도 개최에도 나선다.

한우성 이사장은 "동포사회와 모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내국민의 동포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동포사회와 소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외교센터에 자리한 재외동포재단 전경.

이들은 국내 학생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등 재외동포 출신 모국 유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봉사단은 오는 7~8월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을 초청하는 연수사업과 세계한인차세대대회(9월), 세계한상대회(10월) 등에서 통역·행사보조·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한인 차세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에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3~12월이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과 국내 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선발 시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모국 유학 중인 동포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이메일(okfriends@okf.or.kr)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나 전화(82-2-3415-017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단 관계자는 "봉사단 활동이 국내 청소년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와 동포 청소년의 모국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외동포 대한 관심과 경험 공유를 통해 글로벌 코리안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대학생봉사단은 지난해 국내 거주 고려인을 돕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고려인마을에서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재단 차세대 동포 장학생 선발

재단은 제21기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을 모집한다.

세계 각국의 차세대 동포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해 고국에서 유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민족 인재를 육성하려는 취지다. 학사 과정 35명, 석·박사 과정 45명을 선발한다. 향후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자질 등을 갖추고, 한국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코리안넷(korean.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4월 6일까지) 후, 서류들을 구비하여 거주국의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넷이나 재단 초청 장학생(scholarship.korean.net)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82-2-3415-0177), 이메일(scholarship@okf.or.kr)로 가능하다. [\[장\]](#)

해외 한인 차세대와 교류하는 대학생 봉사단 선발

재단은 해외 한인 차세대와 교류하는 '제7기 OKFriends 봉사단' 7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바른 말 고운 말

“사람은 태우고 화물은 싣고”

“승객 280여 명을 실은 TWA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승객 50명을 싣고 가던 버스가 고갯길에서 추락했습니다.”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싣다’라는 말은 차나 배, 비행기 또는 짐승의 등 따위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다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유람선에 타고 승객이 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싣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싣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화물 취급을 하는 셈입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싣다’라는 표현 대신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사람이 탈것이나 짐승의 등 위에 ‘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다. 자동차를 타다. 말을 타다’ 따라서 사람을 탈것에 타게 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는 ‘타다’의 사역형인 ‘태우다’란 말이 적합합니다. 결국, 승객 280여 명을 실은 TWA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다’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승객 280여 명을 태운 TWA 여객기’, ‘승객 50명을 태운 버스’,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삼가하다는 삼가아

‘문밖출입을 삼가하다.’ ‘문밖출입을 삼가다.’

이 두 문장 가운데 하나는 바른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틀린 표현입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표현일까요? 우리는 흔히 무엇을 꺼려서 몸가짐 따위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삼가하다’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고, ‘삼가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삼가하다’라는 어휘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삼가다’를 잘못 쓰는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삼가하다’란 잘못된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두 문장 중에서 두 번째 문장, ‘문밖 출입을 삼가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2018년 1월호 정답

사	과	한	가	위	성	묘
수	박	화	분	지		
공	원	제	주	도	장	기
		고	물		칼	날
		단			부	
공	자		살	림	집	
대	사	통	풍	구	들	것
다		바		송	이	
열	망	지	물	포		

▶ 오른쪽 방향 열쇠

1.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함을 비유하는 속담
5.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여 내용·기사 등과 관계가 있게 한 그림
6. 늘 분주하게 여행을 다니게 된 액운.
7. 여인들이 한복에 차던 장신구의 하나
9. 나이 어린 여자가 손위에 여자를 정답게 부르는데는 말
10. 문을 열
12. 바느질할 때 바늘을 돌려 밀기 위하여 바늘 주머니 손가락 끝에 끼는 물건
13. 은혜가 깊은 스승
15. 실학사상의 거두 정약용의 호
17. 바쁜 중 잠시 한가한 틈
19.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포착하는 느낌
20.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을 주제로 쓴 밀턴의 소설 제목
22. 점점 속도가 빨라짐
23.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어 괴로움을 당함을 일컫는 말
26. 원자핵 분열의 연쇄반응을 조절하는 장치
28. 먼저 자기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려라. '~치국평천하'
29.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바라만 보는 행위

▶ 아래쪽 방향 열쇠

2. 아들의 아내
3. 생선을 소금에 절인 반찬
4. 한글 자음인 ㄱ, ㄴ을 읽는 소리 말
5. 털이 복슬복슬한 개. 우리나라 토종 개.
7. 사슴과 비슷한 짐승으로 우리나라 야산에 많이 산다
8. '금강산'의 겨울 동안의 명칭. 붉은 봉래산, 가을은 풍악산이라 부른다
11. 어떤 일에 대해 그 방면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
13. 죽는 일
15. 느낌이 많고 감동하기 쉬운 모양. 다정 '○○'하다
16. 요즘은 전자나 컴퓨터로 즐기죠. '오○'
18. 양자와 함께 원자를 구성하는 것
19. 편지나 기사를 쓸 때 여섯 가지 조건에 따라 작성한다는 원칙
20. 실제 알맹이가 되는 내용. '○○'있는 생활
21.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
22. 거리에 심어 푸름과 운치를 더해주는 나무
24. 고깔 쓰고 장삼 입고 중처럼 차리고서 풍류에 맞춰 추는 춤
25. 역사·민속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곳
27. 이것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제제민의 준말

작은 천사들의 미소

강동헌 인도네시아 / 2017 동포문학상 중고부문 최우수상

‘해븐스’는 2005년 인도네시아 땅그랑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 아주머니 몇 분이 힘을 모아 만든 단체로 수카르노 하타 공항 뒷길의 한센병 전문 병원 근처에 모여 사는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곳 사람들에게 매주 5kg의 쌀을 나눠주는 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개인과 단체의 참여가 늘어나 100여 가구의 한센 가정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저와 어머니는 600kg이 넘는 쌀을 함께 나릅니다. 어머니가 흘리는 땀방울이 햇살에 반짝일 때면 그게 아침이슬보다 더 곱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븐스’ 초창기부터 활동해온 어머니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스스로 동참하기 전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이 일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이 되어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그린 ‘올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내용을 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엄마가 이태석 신부님인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집에도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센병, 흔히 문둥병이라 불리는 무서운 천형. 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곁을 지켜주고 섞여서 말을 나누고 눈을 맞추고 악수를 하고 포옹도 해야 하는 상황을 아들인 제가 온전히 받아드릴 때가 오기를 어머니는 오랫동안 기다려주었던 겁니다.

한센인 마을로 향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저 또한 봉사에 나서면서 5년간 한센병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팔이나 다리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쌀을 나눠주다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손가락으로 5kg의 쌀 포대를 힘겹게 드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힘들게 쌀을 짊어지고 가는 그들 뒤로 아이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면 진흙 위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마음이 짙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만들었고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제일 어린 꼬마 학생은 파자르입니다. 형을 따라 5살 때부터 공부방 구석을 차지한 이 꼬마는 혼자 놀다 잠들기를 반복하는 귀염둥이입니다. 형의 공부가 끝날 때까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합니다.

형인 자말은 머리도 좋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애착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형제는 언제나 제가 공부방에 도착하면 달려 나와 반깁니다. 파자르는 달려와 제 품에 안기곤 하는데 찜통 같은 공부방에서 제가 유일하게 느끼는 시원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파자르가 언젠가부터 얼굴에 흰 파우더를 바르고 나타나기에 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품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는데 지저분한 게 미안해 공부방에 오기 전에 목욕하고는 파우더를 발라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를 품은 이 아이가 온전히 자라서 그 향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의 부모는 한센병 환자이지만 본인들은 정상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위생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부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안드레라는 중학생 아이는 늘 얼굴이 어둡고 피부에도 부스럼이 끊이지 않았습니. 어떻게 사는지 자못 궁금했지만 상처가 될까 싶어 물어보지 않았습니. 그런데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던 이 학생이 몇 주째 공부방에 나오질 않아 물어 물어 집을 찾아갔더니 일어나 앉지도 못할 정도로 앓고 있었습니.

아이는 아픈 것보다 자신이 사는 누추한 집에 선생님이 찾아온 걸 더 송구한 듯 힘들어했습니다. 그가 사는 움막 같은 집은 옆에 큰 하수구가 있어 악취 때문에 집안에서도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 더 놀라운 것은 화장실과 수도가 없어 대소변을 하수구에서 해결하고 물은 옆집에서 얻어 쓰고 있었습니. 저는 그제야 평소 이 아이가 왜 얼굴이 어둡고 피부병을 달고 사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 머릿속엔 온통 안드레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6개월 용돈을 부모님께 미리 받아 마을 분들과 함께 안드레 집에 화장실과 수도를 설치해드렸습니다. 이제 안드레는 초롱초롱한 눈빛이 잘 어울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공부방을 찾습니.

누놀은 총명하고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공부방 초기부터 지금까지 결석 한 번 없이 제 곁에서 배움을 꽃피우고 있는 수석 제자입니다. 두 해전 한센병을 앓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누놀은 곳곳이 공부방에 나오고 학교도 다닙니. 학교 담임선생은 어디에서 과외를 받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누놀은 한국인은 좋은 사람이고 한국도 좋은 나라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쌀을 나누어 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는 데다 훗날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놀은 더는 절망이 어울리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 자체가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비바람에도 끄떡 않고 혼자 그늘을 드리우고 우뚝 서 태양과 마주하는 아자수 같은 아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어머니는 해브스 봉사 활동 시 꼭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센병 가족들에게 어설픈 위로와 희망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100% 실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야기하며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나 희망만을 던져 주는 것이 얼마나 그곳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대학 진학을 위해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해브스 공부방에서 보낸 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론 제가 떠난 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봉사자가 없어서 큰 걱정입니다.

요즘에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영어 문법을 인도네시아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 뒤를 잇는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누군가 천국이 어떤 곳이나고 물어온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천사였고, 그 아이들과 함께 한 곳이 천국이었다고.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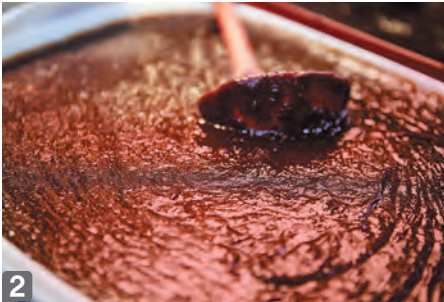


값싸고 푸짐하고 매콤달콤한 '국민간식' 신당동떡볶이

떡 · 어묵 · 쫄면 등 식재료의 조화... 중국인, 일본인도 즐겨 찾아



1



2

서울 중구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거리가 나온다. 이름하여 '신당동 떡볶이 타운'. 60여 년 신당동 떡볶이는 서울의 대표 음식 중 하나로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떡볶이는 향수 어린 추억과 함께 그 맛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매력을 품고 있다.

떡볶이 골목을 걷노라면 식당 안팎에 줄줄이 새겨놓은 메뉴들이 눈에 들어온다. 떡볶이 요리를 대표하는 명칭이 돼버린 신당동떡볶이 외에 해물떡볶이, 치즈떡볶이, 짜장떡볶이 등 파생메뉴가 바로 그것이다. 더불어 눈물떡볶이, 열불떡볶이, 궁중떡볶이 같은 메뉴도 호기심을 자아낸다. 뭘 먹을까? 길손들로선 선택의 고민에 잠시 빠져드는 행복의 순간. 대표 음식은 역시 신당동떡볶이다. 가늘게 뽑아낸 떡볶이 가래떡과 함께 어묵, 쫄면, 라면, 군만두, 계란이 주재료로 들어간다. 초창기에는 밀가루가 들어간 떡을 사용했으나 요즘은 쌀로만 빚는다. 식당에 따라 계란을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한다. 소스 또한 식당마다 조금씩 달라 그만큼 맛의 개성이 느껴진다.

파생 떡볶이 음식들은 이 신당동떡볶이 메뉴를 기본으로 삼는다. 해물떡볶이는 콩나물, 팽이버섯에다 새우 등 각종 해물을 넉넉히 추가하고, 치즈떡볶이는 팽이버섯에다 치즈 떡과 치즈를 별도로 넣는다. 짜장떡볶이는 춘장으로 시작했던 초창기의 떡볶이를 떠올리게 한다. 주문을 받으면 이들 음식은 육수가 더해져 손님 밥상의 가스버너에 올려진다. 육수는 파, 무, 다시마, 멸치, 황태, 새우 등 부재료들로 삶아낸 것. 고추장과 춘장이 일정 비율로 섞인 소스도 합세한다. 각종 식재료와 양념류가 조화를 이뤄 탄생한 별미가 바로 떡볶이 요리다.

1~2. 고춧가루 등 양념.

3~5. 떡, 어묵, 쫄면 등 떡볶이 식재료.

6. 맑은 육수가 부어지는 신당동떡볶이.

7. 떡볶이를 다 먹은 뒤 밥과 김 가루를 넣어 볶은 것.



3



4



5



60여 년 역사의 '신당동 떡볶이'



골목 양쪽으로 떡볶이 식당이 줄지어 늘어난 '신당동 떡볶이 타운' 입구. 7080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DJ박스. 신당동 떡볶이 타운에서 '아이러브신당동' 식당 한 군데서 운영되고 있다.

신당동은 언제부터 떡볶이와 깊은 인연을 맺었을까? 거리의 초입에 있는 식당 '마복림 할머니 떡볶이'는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이다. 이 식당의 역사는 1953년 마복림 할머니(2011년 타계)가 시작해 며느리를 거쳐 손녀까지 3대째 이어지고 있다. 마복림 할머니는 한국 전쟁이 끝나던 해 신당동 골목길에 떡볶이 가판대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했다. 전쟁의 참화 속에 무척이나 배고프던 시절, 남편과 미군 물품 보따리 장사를 하던 할머니는 짜장면에 떨어진 떡을 어느 날 우연히 맛보고는 훌쩍 반해 고추장과 춘장을 일정 비율로 섞어 떡볶이 요리에 나섰다. 춘장은 짜장면에 들어가는 중국식 된장이다.

미군 부대에서 배급받은 밀가루로 작고 가는 가래떡을 뽑은 뒤 고추장, 춘장을 넣어 볶아 팔았던 떡볶이는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1970년대 초에 지금의 떡볶이 골목이 생긴 데 이어 80년대에는 식당마다 DJ박스를 설치해 신청받은 사연과 함께 음악을 틀어 주며 새로운 시대 문화 창출에 일조했다. 고교야구가 인기를 누리면서 인근 동대문운동장에서 야구 관람을 마친 학생과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배를 채울 수 있는 이곳으로 줄줄이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 신당동에는 41개의 떡볶이 식당이 성업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쉽게도 업황이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음식문화의 다양화 등 변화한 시대상과 관련 있어 보인다. 떡볶이 업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형화와 신메뉴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복림 할머니 떡볶이' 집은 할머니가 타계한 뒤 세 며느리가 힘으로 모아 운영하고 있고, 공동대표 법인체제인 '아이러브신당동'은 2002년에 일곱 개의 업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대형화한 곳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6호선 신당역 8번 출구 왼쪽 골목 250m.

떡볶이가 맛이 있으려면 불 조절이 중요하다. 식재료와 육수가 담긴 냄비에 가스 불을 지피 팔팔 끓인 다음 고루고루 잘 저어줘야 한다. 웬만큼 익었다 싶으면 불을 줄여 은근한 열기가 가해지게 한다. 이렇게 잘 뒤섞이고 잘 익은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선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치즈떡볶이를 만들 땐 치즈를 육수가 끓을 때 넣어줘야 한다. 일찍 넣으면 치즈가 냄비 바닥에 눌어붙기 쉽다.

떡볶이 음식의 가격은 식당마다 다소 차이가 나서 1만 원대

에 두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저렴한 편이다. 떡볶이를 다 먹은 뒤 밥과 김 가루를 넣어 볶으면 그 맛이 금상첨화다. 반찬은 단무지 하나로 지극히 단순한 편이나 떡볶이 음식 자체가 워낙 풍성해 부족함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국민 간식' 이자 먹을거리인 신당동떡볶이는 보통의 떡볶이와 달리 춘장이 들어가 외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다. 중국인과 일본인 등 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이곳 떡볶이 골목을 많이 찾는다. **[장]**

국내 동포단체 올해 추진사업 지원신청 접수

재단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 추진사업에 대해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민간단체나 국내 동포언론 등이 국내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제한된다.

중점 지원 분야는 재외동포 권익 신장, 중국동포 및 고려인의 교류 활성화, 국내 거주 동포의 지위 향상과 정체성 제고 사업 등입니다. 외국인 대상 다문화 행사, 단순

친목 도모, 단체 운영, 영리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단체현황과 사업계획서 등을 코리아넷(www.korean.net)에 3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넷을 참조하거나 전화(82-2-3415-0146/009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할 [통]

항니다

74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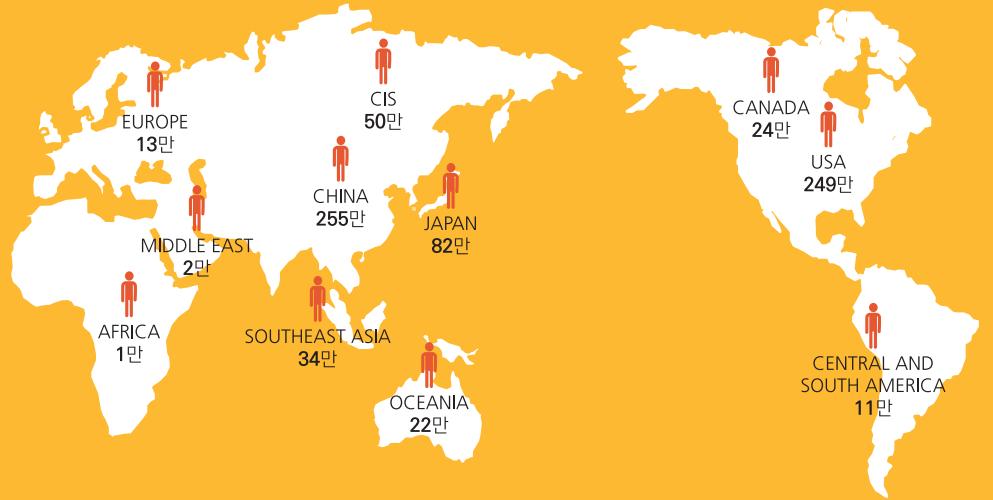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